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 중앙추모대회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강산에 불세출의 전설적위인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드시고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으로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만고절세의 예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천만 군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모습은 주체조선의 불세출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무리에 철통같이 뭉쳐 지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질풍노도처럼 전진하며 조국번영의 새시대, 최후승리의 대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놓았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으며 기발제양대들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추모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방면

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 군기들이 세워지고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받들 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모두 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에로!》

라는 구호판들이 추모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추모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일군들, 연교자, 절건자, 근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참가자들은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초월처럼 불태우시며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행복을 누릴수 있는 무강번영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3 면 으 로 계 속

